

제도사적인 면에서 살펴본 조선후기의 양반에 대한 이해

- 이강욱의 『조선후기 양반제도』(은대사랑, 2023)에 대한 서평 -

전경목*

1. 폭넓은 시각의 조선초기 양반 연구

조선시대의 지배층이 양반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양반이 어떤 자들을 가리키며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을 갖추어야 했고, 지배층이 된 이후에는 무슨 역할을 했으며, 그들은 어떠한 처벌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50여 년 전에 양반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한 학자가 이성무 교수였다.

이성무 교수의 저서 『조선초기 양반연구』의 목차를 살펴보면, 양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양반에 대한 폭넓은 연구 시각을 살펴볼 수 있다. 양반과 科擧, 양반과 官階組織, 양반과 관직, 양반과 軍役編制, 양반과 特殊軍, 양반과 토지소유 등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기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때문이다. 이성무 교수는 이처럼 조선시대 양반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깊이 있게 연구했는데, 특히 당시에는 일제의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련 사료를 하나하나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꼼꼼하게 반박하면서 사실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저서가 출간될 무렵에 어느 한 연구자가 조선 초기 良賤二階級論을 제기하자 학계가 곧바로 이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면서 이성무 교수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해 아쉽기 짝이 없었다. 양천이계급론이란 조선 전기에는 사회신분이 법제적으로 良身分과 賤身分만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는 사회계층으로서의 양반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체 국민은 良人과 노비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 시기에도 ‘양반’이 있었지만 그것은 ‘文武官僚集團’을 가리키는 총칭이었을 뿐 평민보다 상위에 있던 특권적인 신분계층으로서의 양반은 존재하지 않았고, 16세기 이후에나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양천이계급론의 골자이다.

그런데 이 양천이계급론쟁은 補充隊와 관련된 사료 중의 일부를 확대 해석하여 빚어진 일이지만, 그 여파는 매우 크고 오래 지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양반의 賤妾 자녀는 양반의 피를 절반이나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천인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의 관료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 결과 양반의 천첩 자녀는 補充軍 혹은 補充隊라는 특수한 군대에 일정한 기간 소속된 후 양인이 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이 보충대에 속해 있던 기간에는 그들의 신분이 양인이나 천인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애매했다. 그래서 이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조정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 盧思愼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 인물은 양인이 아니면 천인이다. 오직 이 두 종류만 있을 뿐이다[我國人物 非良則賤 只有二途耳].”라고 말했다. 양천이계급 연구자는 노사신의 이 말이 보충대에 소속된 양반의 천첩 자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신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확대 해석하여, 조선 초기에는 법제적으로 신분이 양인과 천인 두 계급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양천이계급론은 근거가 무엇이든, 어느 시대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계급이 있다는 주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조선시대 지배계급이 양반이라면, 이것이 고려시대의 지배계급이었던 귀족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것의 출현이 역사 발전상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는 양천이계급론은 결국 조선시대 양반의 일반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그 특성이나 특질을 이해하려는 데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연구에 혼란을 가중시킨 혐의조차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사회사적인 조선후기의 양반 연구

한편, 이성무 교수의 저서가 발간된 조금 후에 조선시대 양반에 대한 연구가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송준호 교수의 『조선사회사연구』가 그것이다.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특히 후기 사회의 구조와 성격 및 그 변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양반과 과거, 족보와 譜學 및 本貫과 始祖 등 씨족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송준호 교수는 이 책에서 양반이란 무엇이나, 당초에 어떻게 해서 어느 사람은 양반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러하지 못한 채 평민 또는 천민이 되어야만 하였느냐, 또 양반과 비양반을 판별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어 씨족이 당초에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으며 본관과 시조는 어떻게 해서 생겼고, 또 그것이 한 사회제도로써 어떠한 과정의 역사를 거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명했다. 결론적으로 양반이란 先系가 분명하고 先祖 중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조상이 있으며,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

라는 것이 계보상 확실하고 일정한 世居地에서 거주하며 그 세거지를 무대로 양반가문으로서의 역사와 전통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밝혀 냈다. 또 이러한 자격요건은 돈으로 사거나 향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준호 교수의 이 저술은 그 책의 머리말과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사회에 대해 어떤 체계를 미리 세우고 그 체계에 따라 쓴 것이 아니었다. 조선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양반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고, 양반문제를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와 씨족 또는 족보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사적인 입장에서 조선 양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히는 데는 기여했지만, 양반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3. 법전과 사료에 기반한 조선후기 양반제도사 연구

이처럼 조선시대 양반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점이 많다. 특히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양반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성과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강욱 선생이 조선후기 양반제도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서를 간행했다. 이강욱 선생은 오랫동안 조선시대의 사료와 법전을 번역하고 강의하면서 줄곧 조선시대 문서와 양반제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몇년 전에는 조선시대 문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조선시대문서개론』을 상·하 두 권의 책으로 간행한 바 있으며, 근래에는 양반제도에 대한 연구를 망라하여 『조선후기 양반제도』라는 이름으로 저서를 발간했다.

『조선후기 양반제도』는 그 목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양반의 官制·政事·考課·科試·懲罰 등 5편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도사적 측면에서 조선시대 양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각 왕조의 실록을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씨줄로 하고 각종 법전과 官署志·便攷·條例의 규정 등을 날줄로 하여 조선후기 양반제도를 촘촘히 살펴보고 있다.

책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면, 제1편에서는 국가의 행정 조직이나 권한 등 양반의 관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문관인 동반과 무관인 서반의 官階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반과 서반의 品階는 1품에서 9품까지 正과 從으로 나누어 총 18품으로 제정했다. 품계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도 했는데, 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동반직이나 서반직이 근무하던 중앙과 지방의 衙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도표로 작성해서 내용이 쉽게 전달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동반과 서반의 관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관직 관련 어휘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여 그 용어나 개념에 대해 독자들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편에서는 양반의 인사행정 규정과 과정 등을 소개하는 정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시행주체에 따라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吏批政事와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兵批政事에 대해 소개했다. 또 시기에 따라 都目政事와 轉動政事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도목정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사이며 大政이라 했다. 이에 반해 전동정사는 수시로 시행하는 정사로 散政이라 했다. 이외에도 口傳政事, 下批政事, 新恩政事, 置處政事 등이 있었는데 구전정사는 시급히 관원을 차출해야 할 경우 인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정사를 가리킨다. 하비정사는 국왕의 낙점을 받은 관원 등에 대해 행정적 처리를 위해 여는 정사를 말한다. 신은정사는 大科에 급제한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사이다. 치처정사는 관직에서 물러난 大臣 등에게 명예직을 제수하기 위해 열리는 정사를 말한다.

그런데 인사의 절차는 정기 인사와 비정기 인사에 따라 크게 달랐다. 비정기 인사의 경우 政稟 → 牌招 → 開政 → 擬望 → 落點 → 下批 → 署經 → 告身 발급의 절차를 거쳤다. 정품이란 開政取稟 또는 政事取稟의 줄임

말로 인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를 국왕에게 아뢰어 허락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정기 인사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세초와 포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세초는 이전에 징벌을 받았던 전직 관원의 명단을 죄명별로 열거하여 국왕에게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국왕이 이 명단을 살펴보고 낙점하면 대상자는 징벌을 감등해주거나 사면해 주어 다시 서용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포폄은 현직 관리들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그 성적에 따라 승진시키거나 퇴출시켰다. 이처럼 세초와 포폄이 이루어진 후 도목정사 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相避 · 署經 · 歲抄 · 褒貶 · 中批와 承傳 · 自代制 · 천거제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관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상벌을 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고과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관계에 나가는 길은 과거에 급제하여 문관이나 무관으로 入仕하거나 蔭敍나 천거 등을 통해 음관이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의 출신에 따라 근무 평가 제도나 방식이 상이했다. 음관의 경우 20세 이상이라야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교관이나 洗馬는 생원이나 진사로 30세 이상, 가감역은 학생으로서 40세 이상이 되어야 초임사가 가능했다. 또 종9품의 殿參奉은 450일, 능참봉은 900일을 근무하면 종8품 奉事로 승진시켜 주었다. 이렇게 고과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살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과 급제자의 分館職이나 京官職 및 淸顯職, 그리고 서반직의 고과에 대해서도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제4편에서는 양반의 과시로 관리 선발시험인 문과와 무과를 비롯하여 자격시험인 생원진사시와 觀武才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시험인 문과와 무과의 重試와 抄啓文臣製講 및 試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 과거 또는 그와 관련된 각종 시험은 후기로 갈수록 그 종류가 많아져서 이름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문과와 관련된 것만 거론하면 陞補試 · 四學製講 · 公都會 · 儒生殿講 · 節日製 · 黃柑製 · 通讀 · 外方

別試·專經文臣殿講·漢學文臣殿講·吏文製述·月課文臣製述·賜暇文臣製講·抄啓文臣製講·朔書 등인데, 이 시험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무과와 관련된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

제5편에서는 양반의 징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분량이 무려 250여 쪽이 넘는 것을 보면 저자가 매우 심혈을 기울인 항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징벌은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형률은 『대명률』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속대전』이 편찬되면서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두 법전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에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그에 따라 징벌도 세분화되었다. 관직 변동이 없는 징계로는 附過·罰直·削仕·推考·禁推·越俸 등이 있었다. 관직이 변동하는 징계로는 解見任別敍·遞差·汰去·降資·罷職·不敍·禁錮·削職·奪告身·削奪官爵·削去仕版 등이 있었다. 定配에 준하는 처벌로는 門外黜送·放歸田里·付處·遠竄·圍籬安置·充軍·爲奴·全家徙邊 등이 있었다. 사형에 준하는 처벌도 많았는데, 賜死·絞刑·斬刑·凌遲處死·梟首·剖棺斬屍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징계와 처벌이 다양해진 것은 범죄의 정도가 각기 달랐고, 그에 따라 처벌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는 추고를 發緘推考·進來推考·囚禁推考로 나누어 살펴보고 여러 종류의 징계와 처벌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강욱 선생의 『조선후기 양반제도』는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조선후기의 양반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본격적인 학술서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조선후기 양반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제도사적인 면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본 저술은 처음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동반과 서반의 官階는 어떻게 구성되고 중앙과 지방에는 어떤 아문이 있으며 어떤 관직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그들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절차는 어떠하였으

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각 시기마다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시험을 치렀는지도 이 책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 또 관리가 근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조선후기 양반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무려 800쪽에 가까운 저작이라는 점도 크게 주목된다.

특히 저자는 양반의 징벌에 대해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결과 다양한 징계와 처벌에 대해 많은 지식을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후기 형법사의 연구 수준을 한 단계 크게 도약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저작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의 깊은 지식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정성어린 손길을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연구하면서 부딪혔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저자는 이 책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반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사료나 법전에 나오는 각종 용어나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예컨대 관직과 관련하여 正職·實職·軍職·散職·無祿官·加設職·權設職·雜職·遞兒職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료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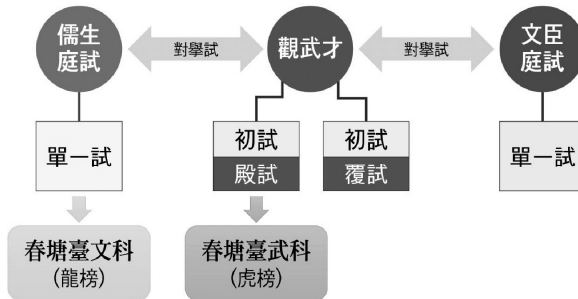
사실 사료나 법전을 읽다보면 이러한 용어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 개념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장 전체의 의미를 오독하여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판되는 각종 사전 등에서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추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류가 적지 않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규정의 전후 맥락이나 기구의 연혁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일종의 사전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용어나 규정에 대해 정확한 의미나 전후 맥락을 알고 싶을 때에는 책의 맨 끝에 있는 <찾아보기>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가 소개하는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인용한 사료나 법전의 내용을 일일이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저서나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료나 법전의 원문을 그대로 제시하지만, 한자나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이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문을 모두 우리 말과 글로 번역하여 오독의 여지를 크게 줄이는 한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이나 절의 끝에 앞에서 설명한 것을 요약해서 이해를 돕고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사료와 법전의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표와 그림을 다수 삽입했다는 점이다. 복잡 다단하고 난해한 조선시대의 제도 등을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하여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마다 도표를 제시하고 그림을 삽입하였는데, 표가 131개, 그림이 56개나 제시되었다는 점을 통해 내용이 쉽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觀武才의 對學試로 어떠한 課試가 실시되느냐에 따라 춘당대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상세한 설명보다 다음의 <그림-42>를 보면 한 눈에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42] 觀武才의 對舉試와 春塘臺試

또 양반의 징계 중에는 관직 변동이 있는 징계와 관직 변동이 없는 징계가 있다. 그 중 관직변동이 있는 징계는 그 종류가 너무 많고 경중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역시 다음의 <그림-47>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47] 官職의 변동이 있는 징계

이외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5개의 문서와 책의 사진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술서가 전문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典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조선시대를 공부하는 전문연구자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를 알고 싶어하는 일반 독자에게도 일독을 강력히 권장한다.